

#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The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dual-earner families with school-aged children

중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양희

대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박충선

성심여자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서동인

덕성여자대학교 가정학과 조교수 신화용

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조교수 조병은

수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최규련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im, Yang Hee

Dept. of Home Management, Taeg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Park, Chung Sun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m Women's University

Lecturer : Suh, Dong In

Dept. of Home Economics, Duks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hin, Hwa Yo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ociate Professor : Cho, Byung Eun

Dept. of Home Management, University of Suwon

Associate Professor : Choi, Kyu Reon

##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의 전개과정

IV. 연구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맞벌이가족을 위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 본 논문은 1991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current status of dual-earner families in Seoul. The specific aim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dynamics of marital relationship,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old mother-daughter/daughter in law relationship in the same family.

The sample consisted of 265 dual-earner families was selected based on wives' jobs, primarily non-professional. The information was gathered from working couples and their school-aged childre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Sex role attitude of husbands was more traditional than their wives. Therefore, housework sharing of husbands was very low and wives' perception of inequity was high. Wives' marital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the wives' perception of inequity, joint leisure activity, sexual satisfaction, and wives' job satisfaction.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sexual satisfaction, perceived difficulties and problems of the husbands caused by wives' employment, and the degree of their housework participation.

2. The emotional uneasiness of children during mothers' absence was reported. The communication about mothers' job was helpful to gain children's understanding toward mothers' job. Mothers suffered from guilty feeling of neglecting their children in spite of their good performance of mothering role.

3. The employed daughters/daughters in law perceived high rewards and low cost in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mothers in law. The perceived quality of daughter-mother relationship was higher with low cost and high rewards than that of daughter in law/mother in law.

Finally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 I. 문제의 제기

최근에 일어난 가족 변화중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맞벌이가족의 증가이다. 맞벌이가족은 산업사회적·도시적 개념이다. 산업사회에서의 맞벌이가족이란 여성이 결혼한 후에 직장을 갖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맞벌이가족의 출현은 역사적·사회적 맥락안에서의 여성 경제 활동의 변화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00년대 초 구한말부터 해방이전까지는 여성 노동참여의 원초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의 노동참여는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식민지시기의 왜곡된 자본주의과정의 결과로 나타나 여성 노동의 사회적 의미나 여성지위와는 전혀 무관

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해방이후부터 1960년 이전까지를 여성 노동의 인식 전환기로 볼 수 있으며 6.25동란동안 남성 노동력의 부족으로 여성 경제 활동이 활발해 졌으나 종전후는 여성들을 가정내에 묶어 놓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었다. 1960년 이후 1980년까지는 여성 노동력의 양적 팽창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정부주도하의 수출위주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에 의해 농촌에서는 여성으로 하여금 생계적 농업노동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도시에서는 비공식 부분의 여성노동 참여를 유발시켜 노동력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 안정단계에 접어들면서 절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출생율저하, 생활수준의 향상과 교육수준의 증대로 인

하여 저학력 미혼 여성 노동력이 감소하자, 여성취업자들의 연령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기혼 여성의 취업비율도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구시대적인 가족의 역할분담과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거나 거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의 경제적 수준만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앞세우면서 형성된 가족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맞벌이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맞벌이가족에 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취업모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개인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맞벌이가족이라는 하나의 가족체계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다.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취업부인을 대상으로 가족내의 역할담당 체계중 부인 취업으로 인해 비롯되는 역할상의 특성 및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부부양방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와 역할분담, 부인 취업에 따른 보상과 비용관계 등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취업모들이 자녀 양육 및 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관련연구는 주로 유아기자녀 가족을 대상으로하여 자녀의 양육실태 및 타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 학동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관계의 실태와 이에 대한 모와 자녀의 양방적인 견해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노모와의 관계는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취업한 성인딸 혹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조사한 연구가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맞벌이가족의 특수한 상황 및 앞으로의 맞벌이가족의 보편화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중요한 연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맞벌이가족의 문제 해결은 정부주도하에 국가적 정책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으나 개별가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변화의 역동적인 작용에서 형성된 맞벌이가족을 개인차원에서

가 아니라 삼세대를 통한 가족 전체로 접근하고자 한다. 가족하위체계의 역동적 분석을 통하여 맞벌이가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복지정책에 까지 연결시키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 1. 부부관계

부인 취업에 따른 부부관계에 관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역할수행과 가사분담(이동원, 1976; 유영주, 1977; 정해은·서병숙, 1983; 이연주, 1984), 부인의 역할과중과 갈등(이원표, 1983; 임정빈·정혜정, 1986; 안선영, 1988; 강성희, 1989; 구혜령, 1990; 이연숙외, 1992), 의사결정과 권력형태(강수경, 1985; 이정우·김규원, 1986), 결혼적응과 만족(신성자, 1981; 서동인, 1985; 김경숙, 1987; 박미령, 1987; 도미향·최외선, 1990)등에 대한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는 남편이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부인에게 능력있는 여성(슈퍼우먼)을 기대하고, 취업부인을 위한 가정내, 직장내 지원체계의 불충분 때문에 부인들은 심리적·신체적으로 긴장과 갈등을 겪으며 그결과 결혼만족도도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났다. 또한 부인이 처한 어려움의 정도는 부인의 직업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여 대부분 부인에 초점을 두고 취업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부인과 정서적 역동관계에 있는 남편들도 역시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어려움과 갈등을 느낄 수 있다. 한편 부인취업이 경제수준의 향상과 부인의 가정내 지위와 자존감을 높이며 남편들도 부인의 취업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보상을 느끼게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부인의 취업이 부부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Pleck, 1985; Sexton & Perlman, 1989; Thompson & Walker, 1991),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 자원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Spitze, 1988; Seccombe, 1986; Tiedje etc., 1990)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요약하면 연구대상이 대부분 부인에 국한되고 남편을 제외시킴으로써 부부 양방

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부부관계의 여러 측면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부인의 직업지위에 따른 부부관계 특성에 관해 단편적인 결과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부양방을 대상으로 하고, 부인의 취업에 따른 갈등 및 자원요인, 역할분담과 성역할태도,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에 대해 통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인의 직업지위에 따른 부부관계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 2. 부모 자녀 관계

맞벌이가족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는 모의 부재와 모의 이중역할에서 비롯된 심리적·신체적 긴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자녀양육실태(이영, 문수재, 지혜련, 1986; 이연숙외, 1992), 모의 취업이 자녀의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김재근, 1985), 모의 취업이 자녀의 지적탐색과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강영자, 1984; 김재근, 1985; 이용숙, 김영화, 최상근, 1988)에 관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주로 유아기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특히 자녀보육 문제와 탁아소의 필요성 및 탁아의 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였고 취업모 집단과 전업주부 집단의 자녀발달 특성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동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부모 자녀 관계의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학동기 자녀는 돌보는 이가 반드시 없어도 혼자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자칫 잘못하면 방임상태에 놓여질 수 있다. 학동기 자녀는 모의 취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이 시기는 자신의 생활을 혼자서 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기도 하다. 맞벌이 가족의 학동기 자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고, 이들을 위한 지지방안 및 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차도 미미한 현 실정에서 이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 3. 노모-성인자녀 관계

노부모-성인자녀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부양의식(서병숙, 1986, 1989; 허훈, 1988), 부양행동(김송애, 1990; 송현애·김순옥, 1988), 자녀와의 관계가 노부모의 인생만족에 끼치는 영향(김종숙, 1987; 박경란, 1988; 서병숙, 1989; 조병은, 1988) 등을 주로 노부모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본 노부모와의 관계 및 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가 없으며 특히 맞벌이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관계나 역할을 본 연구도 거의 없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영향과 공적 지원체계의 제한으로, 맞벌이 가족에 있어 노모의 존재는 중요하고 기능적일 수 있다. 예를들면 노모는 가사 조력자로서, 아이들의 훈육대리자로서, 또한 생활의 조언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성인 딸/며느리에게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맞벌이가족에서 노모는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양을 받는 입장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정서적, 실제적 도움을 주는 지지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선주, 1990). 기혼여성의 취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혼 취업여성의 노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현 시점에서 맞벌이 가족의 성인자녀와 노모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성인자녀-노모관계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성인자녀-노모의 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다.

## 4. 맞벌이가족을 위한 정책

맞벌이가족을 위한 정책은 주로 여성정책, 여성노동정책으로 전개되어 왔다. 연구는 부녀복지, 여성복지 분야에서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나 정책분석, 개선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김영모, 1980; 이정숙, 1982; 김성천, 1985; 김동윤, 1985; 김종숙, 1985; 장인현, 1985; 황숙연, 1987; 변화순, 1989).

맞벌이가족의 가족구조 및 구성원의 변화, 가족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등에 대한 연구 및 여성과 가족복지에 대한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명홍, 1983; 권영자, 1986; 김상균, 1984; 한국여성개발원, 1987) 맞벌이가족을 위한 통합적 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가족의 복지요구 및 문제를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맞벌이가족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맞벌이가족의 가족정책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 Ⅲ. 연구의 전개과정

#### 1. 연구문제

##### 1) 부부관계

- 1-1. 남편의 가사참여정도, 부부각자의 일하는 시간의 불공평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역할갈등 정도를 알아본다.
- 1-2. 부인의 취업에 따른 보상 즉 자원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를 알아본다.
- 1-3. 부부간의 대화와 여가생활, 성생활은 어떠한가를 알아본다.
- 1-4.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요인에 대해 파악한다.
- 1-5. 부인의 직업지위별 부부관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 2) 부모-자녀관계

- 2-1. 모의 귀가때까지 자녀들의 방과후 생활과 이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하여 알아본다.
- 2-2. 자녀들이 지각한 모취업의 장단점을 밝힌다.
- 2-3.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도와 의사소통에 대하여 알아본다.
- 2-4. 자녀의 자기관리 및 가사참여 정도를 살펴본다.
- 2-5. 모의 자녀에 대한 불안감 및 죄책감의 정도, 모취업의 영향에 대한 모의 견해와 자녀생활에 대한 모의 감독 실태를 파악한다.

##### 3) 노모-성인자녀 관계

- 3-1. 성인 딸/며느리-노모의 관계는 성인 딸/며느리 및 노모의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다.
- 3-2. 성인 딸/며느리가 느끼는 바람직한 노모의 상은 어떠한가를 밝히고 노모로부터 받는 도움의 종류와 양을 알아본다.
- 3-3.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에서 동거/분거에 따라 성인 딸/며느리가 느끼는 보상과 비용은 어떠한가를 알아본다.
- 3-4.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에서 시가/친가에 따라 성인 딸/며느리가 느끼는 보상과 비용은 어떠한가를 알아본다.

##### 4) 맞벌이가족을 위한 정책

- 4-1. 맞벌이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에 대한 요구를 알아본다.
- 4-2. 맞벌이가족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내용을 밝힌다.

#### 2. 연구방법

##### 1) 조사방법

본 연구대상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학동기자녀 가족으로 부부가 함께 직장을 가진 265가족이다. 기존의 연구가 전문직 기혼여성에 치중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위직 집단에 노동생산직, 기능직, 고용판매직, 중위직 집단으로 자영상업, 자유업, 사무직, 전문기술직이 포함되었으며, 각 직업집단에 비슷한 가족수를 할당한 편의표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동기 자녀를 둔 가족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전문직을 가진 주부가 제외되었으므로 전국 통계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중위직과 하위직의 분류는 홍두승(1983)의 직업분류에 기초하였다.

설문지는 취업주부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노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취업주부의 남편이 부부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학동기자녀 1명이 어머니 취업의 영향 및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한 가족에서 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 2) 조사대상 가족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은 265쌍의 맞벌이 부부와 그의 학동기 자녀로 구성되었다. 남편의 평균연령은 40.5세, 부인의 평균 연령은 37.4세로 이들 부부의 평균 결혼기간은 12.6년이었고, 자녀수는 평균 2.0명이었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58.5%,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확대가족이 41.5%로 나타났으며, 친정 보다는 시가중심의 확대가족 형태가 많았다. 교육수준은 남편의 경우 고졸이하가 37.4%, 대졸이상이 62.6%인데 반하여 부인의 경우 중졸이하가 18.9%, 고졸이 37.4%, 대졸이상이 43.8%로 나타났다.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남편은 농·축산업이 1.6%, 노동생산직 9.1%, 기능직 9.5%, 고용판매직 2.3%, 자영업·상업 16.7%, 자유업 2.7%, 사무직 30.4%, 전문기술직 16.0%, 관리직 4.6%, 전문직 5.7%, 그리고 기타 직종이 1.5%의 분포를 보였다. 부인의 경우에는 노동생산직 16.6%, 기능직 10.9%, 고용판매직 11.3%, 자영업·상업 12.5%, 사무직 18.9%, 전문기술직 29.8%였다. 남편의 평균 소득은 113.8만원 부인은 79.7만원으로 나타났고, 가구당 월평균 저축액은 57.2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는 조사대상자의 56.2%가 자기 집을 소유하였고, 전세는 40.8% 월세 2.3%, 기타 0.8%로 나타났다. 50.2%의 취업주부가 가사 조력자가 전혀 없었으며, 시간제 파출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10.6%, 숙식가정부가 3.4%, 그리고 나머지 35.8%의 경우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족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전문직을 가진 주부가 제외되었으므로 전국통계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 3. 조사도구

### 1) 부부관계

#### 가. 성역할 태도

개인이 가지는 규범적 지향성으로서 가정내 역할과 성에 따른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전통적 태도가 1점, 근대적 태도가 5점인 리커트 척도로 3분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값이 부인은 .64 남편은 .58이다.

#### 나. 역할갈등

부인 취업에 따른 역할양립과 적절한 역할수행과 관련되어 부부각자가 역할비양립, 역할과중, 역할기대와의 불일치, 시간제약, 불편함등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에 1점, '항상 느낀다'에 5점을 주는 리커트 척도로 부인은 7분항, 남편은 8분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부인의 경우 "집안일, 직장일등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쫓기는 기분이다." 남편의 경우에 "가정의 분위기가 긴장되어있고 정신적으로 편안히 될 수 없다."이다.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값이 부인은 .73 남편은 .79이다.

#### 다. 자원인지

부인이 취업함으로써 받는다고 인지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보상 정도를 의미한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인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부인은 4분항, 남편은 5분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예로부인은 "나는 직장생활을 통해 가정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남편의 경우 "아내가 가정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집안분위기가 더 활기있다"이다.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값이 부인 .72, 남편 .74이다.

#### 라. 결혼만족도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7점 리커트 척도 1분항과 결혼을 후회하는 정도, 별거나 이혼의 고려정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할 것을 고려하는 정도를 묻는 5점 리커트 척도 3분항을 합한 4분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값이 부인은 .84, 남편은 .81이다.

#### 마. 불공평 인지

직장근무시간과 집안일을 하는 시간을 합한 하루 전체의 일하는 시간을 배우자와 비교해 보고 불공평성을 어느정도 느끼는지 단일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점수가 많을수록 자신의 불공평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바. 기타변인

남편의 가사참여정도, 남편의 지지, 대화만족, 부부공동의 여가, 성생활 만족, 부인의 취업에 따른 성

문제는 각각 5점 리커트 척도의 단일문항으로 부부 양방을 측정하였다.

## 2) 부모자녀 관계

### 가. 자녀의 불안감

자녀들이 귀가후 모의 부재기간에 느끼는 자녀의 심리적 상태를 측정하는 4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1점에서 3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Cronbach의  $\alpha$  값은 .68이다.

### 나. 자녀가 지각한 모의 직업에 관한 의사소통

모의 직장동료에 대하여 어느정도 의사소통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3항목으로 1점에서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Cronbach의  $\alpha$  값은 .65이다.

### 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 자녀간의 친밀도

부모 자녀 간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6항목으로 1점에서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의  $\alpha$  값은 .74이다.

### 라. 자녀가 보고한 자녀의 자기관리 및 가사참여

자녀의 생활영역에서의 자기관리 및 가사참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8개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응답 중“예”로 응답한 수를 합쳐 산출하였다.

### 마. 모가 지각한 자녀생활에 대한 감독

자녀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모의 감독 정도를 측정하는 6항목으로 구성되었고 1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서 Cronbach의  $\alpha$  값은 .68이다.

### 바. 모가 보고한 자녀에 대한 불안감 및 죄책감

직장에서 모가 자녀들에 대해 갖는 걱정과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측정하기 위한 2항목으로 1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 3) 노모-성인자녀 관계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변인은 노모와의 동거 여부, 응답대상인 노모의 시모/친모여부, 분거의 이유 및 취업주부의 직업지위이다.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관계에서 느끼는 보상과 비용 및 관계의 질이 사용되었다.

### 가. 보상

보상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심리적 안정 및 개인의 성숙을 의미하며 총 4항목으로 구성

되었으며, 매우 그렇다(5), 전혀 그렇지 않다(1)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해진다.”이다. 본 측정 도구의 Cronbach의  $\alpha$  값은 .66이다.

### 나. 비용

비용은 어머니와의 관계로 인해서 야기되는 시간적, 경제적, 정서적 문제를 나타내며 총 5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5), 전혀 그렇지 않다(1)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어머님으로 인해 남편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이다. 본 측정 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한 Cronbach의  $\alpha$  값은 .80이다.

### 다. 관계의 질

관계의 질은 어머니에게 느끼는 친밀감을 나타내며 4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5), 전혀 그렇지 않다(1)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어머님과 가깝다고 느낀다”이며 신뢰도 측정을 위한 Cronbach의  $\alpha$  값은 .87로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부부관계

#### 1) 남편의 가사참여 정도

남편의 가사참여 정도를 부인과 남편에게 각각 질문한 결과 부부 모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것은 ‘남편이 조금 돕는다’로 부인은 57.0%, 남편은 69.2%를 차지했다. ‘남편이 많이 돕는다’는 비율은 부인은 23.5%, 남편은 18.6%로 나타났고 가사협조가 아닌 책임의 성격을 지닌 남편의 가사 참여율은 매우 적었다. (부인응답 3.4%, 남편응답 1.1%) 한편 남편이 전혀 돕지 않는 경우도 부인 16.6%, 남편 11.0%를 차지했다. 남편과 부인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남편의 가사참여 정도에 대해 부부간에 유사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인의 취업을 지지하는 남편과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 남편들이 가사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불공평인지

직장일과 집안일을 하는 시간을 합한 전체 일하는 시간에서 배우자와의 불공평성을 어느정도 느끼는지 본 결과, 부인들은 '전혀 느끼지 않거나 느끼지 않는다.'가 20.1%, '가끔 느낀다.'가 39.8%, '자주 느낀다.'가 23.1%, '항상 느낀다.'가 17.0%를 차지하여 80% 가량의 부인들이 일하는 시간에 있어 자신의 불공평을 느끼고 있다. 남편들은 63%가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여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고, '부부가 공평하게 일한다.'에 12.2%, '남편이 부인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한다.'에 12%로 응답하였다.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에 남편과 부인의 인식이 일치하였다. 부인의 경우 남편의 가사참여가 적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불공평을 더 크게 인지하였다. 남편집단에서는 부인의 직업이 중위직인 경우, 부인의 취업을 지지하는 경우에 부인의 불공평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았다.

## 3) 역할갈등

부인은 5점기준 평균 3.50점(표준편차 .73), 남편은 2.88점(표준편차 .79)으로 부인이 남편보다 역할갈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t=3.78, p<.001$ ). 부부 각자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 부부 양방이 역할갈등을 많이 느꼈고, 남편의 지지가 적은 경우 남편집단에서 역할갈등을 많이 느꼈다.

이 결과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은 남편 부인 모두 취업주부가 많은 역할을 동시에 잘 수행해 나가는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한데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취업주부가 남편에 비해 더 많이 역할갈등을 느끼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 비해 더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본 연구 결과(부인 평균 2.20, 남편 2.63,  $t=6.19, p<.001$ )와 관련된다고 보여진다.

## 4) 자원인지 정도

부인이 5점기준 평균 3.60점(표준편차 .84), 남편이 평균 3.31점(표준편차 .72)으로 대체로 중상정도로 자원을 인지하였고, 부인이 남편보다 더 유의하게 자원인지 점수가 높았다( $t=8.96, p<.001$ ) 부인의 직업이 중위직인 경우, 남편의 지지가 있을 경우, 부부

양방에서 공통적으로 부인의 취업에 따른 보상 즉 자원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부인이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질때 역시 자원인지도가 더 높았다.

## 5) 대화만족 정도, 공동의 여가, 성생활 만족

부부간의 대화에 대해 충분/부족정도를 질문한 결과 부인의 응답은 '부족하다.'가 35.1%로 가장 많았고, 남편의 응답은 '보통이다.'가 34.3%로 가장 많았다. '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를 합하여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을 보면 부인이 45.3%, 남편이 35.9%를 차지하여 부인이 남편에 비해 대화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2.48, p<.05$ ).

부부 공동의 여가·취미생활 정도는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편이 과반수 이상(부인 50.3%, 남편 59.4%)을 차지하였고 가끔 있는 편이 부인 37.1%, 남편 33.3%를 나타내어서 부부 공동의 여가나 취미생활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인이 남편보다 공동의 여가가 부족함을 더 느끼고 있으며 이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2.13, p<.05$ ).

부인의 직장생활로 인해 성생활에 어느정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지 조사한 결과 부인(53.2%)과 남편(55.4%) 모두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비율은 남편 29.2%, 부인 27.1%로서 그 비율은 적지만 상당수의 부부가 맞벌이 하기 때문에 성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있었으며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인의 직업이 하위직일때 남편일방에서 성문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부부중 과반수 이상(부인 51.9%, 남편 56.1%)이 성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만을 느끼는 비율은 부인(8.4%), 남편(12.2%) 모두 낮으며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인의 직업이 중위직인 경우, 남편의 지지가 있을 때, 남편과 부인 모두 성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 6)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보면 부인은 평균점수가 15.13점(표준편차 3.61)이고, 남편은 16.74점(표준편차 3.19)이어서 부부 모두 중간수준의 결혼만족도



를 보였고, 부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t=-8.14$ ,  $p<.001$ ) 부인은 남편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부인의 직업이 중위직인 경우,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지지하는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는 결혼 생활에 더 만족하였다.

결혼만족도에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다단계 투입(stepwise) 방식으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정도는 낮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배제되었다.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부인이 인지하는 불공평 정도( $\beta=-.26$ )이며, 부부공동의 여가( $\beta=.19$ ), 성생활만족도( $\beta=.18$ ), 부인의 자원인지도( $\beta=.13$ ), 직업만족도( $\beta=.12$ ), 대화만족도( $\beta=.12$ )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일하는 시간에서 남편과의 불공평을 적게 느낄수록, 부부 공동의 여가나 취미생활이 자주 있을수록,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직장

생활에 따른 자원획득을 크게 인지할수록, 직업에 대해 만족할수록, 부부 간의 대화정도에 대해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부인들은 결혼생활에 대해 더 크게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이들 6개 변인의 설명력은 30.7%이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 $\beta=.35$ )이며 그 다음으로 역할갈등( $\beta=-.27$ ), 남편의 자원인지도( $\beta=.14$ ), 가사참여도( $\beta=.13$ )의 순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남편들이 성생활에 만족할수록, 부인취업에 따른 역할갈등을 적게 느낄수록, 부인취업에 따른 자원획득을 크게 인지할수록, 가사참여 정도가 많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이들 4개 변인의 설명력은 33.1%이었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부부 양방의 결혼만족도에 역할구조와 관련된 변인인 불공평 인지와 역할갈등 및 남편의 가사참여도

〈표 1-1〉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 변인	B	Beta ( $\beta$ )	Sig t
불공평성 인지	-.9081	-.2572	.0000
부부 공동의 여가	.6990	.1873	.0013
성생활 만족도	.6600	.1803	.0018
부인의 자원인지도	.1385	.1298	.0264
직업만족도	.2888	.1165	.0387
대화만족도	.3985	.1183	.0403
회귀상수		9.06	
R <sup>2</sup>		.3074	

〈표 1-2〉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 변인	B	Beta ( $\beta$ )	Sig t
성생활 만족도	1.1068	.3457	.0000
역할갈등	-.1502	-.2666	.0000
남편의 자원인지도	.1286	.1382	.0148
남편의 가사참여	.7284	.1327	.0154
회귀상수		12.49	
R <sup>2</sup>		.3314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에 있어 남편 집단과 부인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부인의 경우는 역할갈등과 남편의 가사참여정도 대신에 불공평 인지도만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인데 비해, 남편의 경우는 불공평 인지도 대신에 역할갈등과 가사참여 정도가 각각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역할갈등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부인집단의 경우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낮을수록 역할갈등과 불공평 인지도가 높고, 역할갈등과 불공평 인지도가 정적 상관을 보여서 이들 변인의 영향력이 불공평 인지도에 의해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인의 결혼만족은 남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공평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좌우되고, 남편은 불공평에 대한 느낌 대신에 개인이 느끼는 역할갈등과 가사참여 정도에 따라 결혼만족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생활 요인과 부인 취업에 따른 부부 각자의 자원인지 정도가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생활 만족도가 부부 양방의 결혼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남편집단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부각되었고, 부인의 직장생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보상으로서 자원 획득을 부부 각자가 크게 인지할수록 부부 양방은 결혼생활에 만족함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남편과 부인의 성차를 보면 부인집단에서는 부부공동의 여가, 대화만족도등의 변인과 직업만족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남편집단에서는 이들 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앞에서 밝혀진 사실 즉 부인집단이 남편집단에 비해 부부 공동의 여가생활 부족과 대화부족을 더 많이 느끼며 남편의 지지에 따라 부인의 직업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과 관련시켜 볼 때 부부중 부인들이 역할의 공유와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더 지향하고 있고 남편과 달리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이 결혼 만족도의 요인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부인의 직업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 분석  
부인의 직업을 하위직과 중위직 집단으로 분류하

여 각 집단별로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별 차이를 보면 하위직 집단의 부인에서 불공평인지도( $\beta = -.37$ )와 성생활 만족도( $\beta = .31$ )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설명력 25.0%), 중위직 집단의 부인에서는 대화만족도( $\beta = .27$ ), 부부공동의 여가( $\beta = .22$ ), 직업만족도( $\beta = .20$ ), 남편의 가사참여도( $\beta = .16$ ), 자원인지( $\beta = .14$ )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명력 32.6%).

남편의 경우는 역할갈등(하위직 $\beta = -.24$ , 중위직 $\beta = -.20$ )과 성생활 만족도(하위직 $\beta = .50$ , 중위직 $\beta = .23$ )가 집단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중위직 집단의 남편에서는 하위직 집단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대화만족도( $\beta = .25$ ), 남편의 지지도( $\beta = .16$ )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설명력: 하위직, 39.4%, 중위직, 31.2%).

이 결과에서 하위직 집단은 남편과 부인 모두 역할과 관련된 갈등이나 불공평인지 변인과 성생활 만족도만이 결혼만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고, 중위직 집단은 부부 모두 대화나 여가등의 상호작용 변인과 남편과 관련된 변인(부인의 취업에 대한 지지와 가사참여), 그리고 직업관련 변인(직업만족도)이 결혼만족도의 요인으로 더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인의 직업지위에 따라 결혼만족도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부인의 직업지위에 따라 인구학적 변인과 직업관련 변인이 차이있고, 부부의 역할구조, 자원인지 및 권력관계, 상호작용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하위직에 종사하는 부인과 그 남편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고 핵가족이 많고 가사조력자가 없는 경향이며, 경제적 이유로 부인이 취업하며 남편의 지지가 더 낮고 성역할 태도도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직 부인과 그 남편들은 중위직 집단에 비해 부인 취업에 따른 자원인지도가 낮으며, 부부공동의 여가가 부족함을 느끼고, 부인 취업에 따른 성문제를 더 많이 느끼며, 성생활 만족도가 낮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하위직 집단의 부부들은 중위직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더 낮으며,

집단별 특성때문에 중위직의 부인과 그 남편들은 부부공동의 상호작용을 더 지향하고 하류 계층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직업 관련변인과 남편의 가사참여 및 상호작용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의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부모-자녀관계

조사대상은 맞벌이가족의 모와 학동기 자녀이다. 자녀는 남자 135명(51.7%), 여자 126명(48.3%)으로 1학년 16명(6.1%), 2학년 16명(6.1%), 3학년 60명(23.0%), 4학년 34명(13.0%), 5학년 50명(19.2%), 6학년 72명(27.6%)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들이 방과후 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이 기간에 모와 접촉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그리고 모의 부재시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 1) 자녀들의 방과후 생활

조사대상중 192명(73.6%)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고, 70명(26.9%)은 학교나 친구집에서 놀다가 7명(2.7%)은 오락실이나 만화거리에 들렀다가 간다고 응답하였다. 집에 돌아올 때 빈집에 들어오는 경우 107명(41.0%), 조부모가 맞이해 주는 경우가 83명(31.8%), 이웃집 6명(2.3%), 가정부, 파출부가 맞이해 주는 경우 13명(5.0%)이다.

맞벌이가족은 자녀관리에 있어 조부모로 부터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가족에 있어 확대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업주부가족의 경우보다 높다는 조사결과와도 일치한다.

모의 부재시 자녀들은 숙제나 공부하기(182명, 69.7%), 학원(144명, 55.2%)에 간다고 응답한 반면 T.V보기(109명, 41.8%), 친구와 놀기(129명, 49.4%)로 소일하며 집안일을 한다는 응답은 22명(8.4%)이다.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에게 집안일의 과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동안 대상자의 186명(71.3%)은 모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있으며 81명(31.0%)은 두번 이상의 전화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 2) 모 부재시의 자녀들의 심리적 상태

모 부재시 자녀들의 심리적 상태는 대상의 39.8%가 심심해하고 23.8%가 두려운 적이 있으며 나쁜 사람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30.7%이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대상은 42.1%,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은 30.3%이다. 모 부재시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자녀의 연령, 성별, 형제수, 가족형태, 모의 직업지위와 자녀의 불안감과의 관계를 중다회귀분석으로 보면, 자녀의 성별( $\beta = -.22, p < .001$ )과 모의 직업지위( $\beta = .15, p < .05$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여아가 남아보다 더욱 불안감이 높고 하위직 취업모의 자녀가 중위직 취업모의 자녀보다 더욱 높은 불안감을 보고한다.

대상의 58.6% (153명)가 모가 직장을 그만 두기를 원하는 편이다. 모가 직장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의 성별, 연령, 형제수 가족형태, 모의 직업지위를 독립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모의 직업지위( $\beta = .22, p < .001$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하위직 취업모의 자녀가 중위직 취업모의 자녀보다 모가 직장을 그만 두기를 더욱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직 취업모의 집단에서 생활의 여러 조건이 불리하여 자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 3) 자녀들이 지각한 모 취업의 장단점

조사대상의 67%가 직업을 가진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하고(그러나 중위직 자녀의 51%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하위직 자녀의 19.6%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63.6%가 경제적인 여유를, 46.0%가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모의 취업의 장점으로 들고 있다. 자기마음대로 지낼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여기는 대상은 25%내외이다. 앞에서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기를 원하는 비율이 58.6%로 나타났다지만 동시에 일하는 엄마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의 취업의 단점으로는 60%이상이 엄마가 안계셔서 싫거나 엄마의 고단한 모습을 들고 있다. 집안

〈표 2-1〉 자녀가 지각한 모의 직업에 관한 의사소통

모의 직업에 관한 의사소통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 편이다
엄마의 직장, 동료에 대한 이야기	151(57.9)	108(41.4)
엄마의 직장에 기본적으로 있다	160(61.3)	96(36.8)
엄마의 직장동료를 만나 본적이 있다	178(68.2)	77(29.5)

일을 많이 시켜서 싫다는 대상은 15.3%이고 모와의 상호작용의 제한이나 학교나 공부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부족한 점은 상당히 제한된 아동에게서만 제시되고 있다.

#### 4) 자녀가 지각한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친밀도

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여러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여기에서의 관심은 모가 자신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에게 어느 정도 하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

대상의 절반이상이 모의 직장생활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상의 70%이상이 부모와 친밀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보다는 모에게 더욱 친밀함을 느끼고 있으나 학동기 자녀인데도 모에게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말할 수 없다는 비율이 23.8%나 되었다.

모의 직업지위, 자녀의 성별 및 연령이 자녀가 지각하는 모직업에 관한 의사소통과 부모-자녀간의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한 결과 하위직 취업모의 자녀보다는 중위직 취업모의 자녀가 ( $\beta = -.30, p < .001$ ) 모가 직업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자녀가 느끼는 부모 자녀간의 친밀도는 성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남아보다는 여아가 ( $\beta = -.21, p < .01$ ) 높다.

#### 5) 자녀의 자기관리 및 가사참여 정도

대상의 50%이상이 자기일이나 심부름, 간단한 음식준비, 상차리기에 참여하나 설거지나 빨래등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다. 빨래와 같은 일을 적게 하는 것은 세탁기 사용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매주 갈아야 하는 실내화를 직접 빼는 자녀도 23.4% 밖에 없었다. 자기관리 및 가사참여정도는 모의 직

업지위와 교육수준, 자녀의 성별과 연령중 자녀의 성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 $\beta = -.1854, p < .01$ ) 남아보다는 여아가 높다.

위에서 언급한 변수중 5개변수들의 대략적인 관계를 단순상관 관계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가 직장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자녀의 태도는 모의 부재시 자녀가 갖는 불안감과 유의한 정적관계 ( $r = .2239, p < .001$ )를 갖으며, 모의 직업에 관한 의사소통 정도와 부적 상관관계 ( $r = -.1589, p < .05$ )를 갖는다. 자녀가 모 부재시 불안을 많이 느낄수록 모가 직장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태도가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모직업에 관한 의사소통정도가 높을 수록 모가 직장을 그만 두기를 바라는 자녀의 태도 점수가 낮다는 것은 취업모와 자녀가 서로 모의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서 일하는 모에 대한 이해를 자녀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 부재시 자녀의 불안감은 부모-자녀간의 친밀도와 정적관계 ( $r = .1183, p < .05$ )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학동기단계에 있는 자녀가 아직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한 한국가족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모직업에 관한 의사소통은 부모 자녀간의 친밀도와 정적관계 ( $r = .2075, p < .001$ )를 갖는다.

#### 6) 자녀에 대한 모의 불안감 및 죄책감

취업모나 절반이상이 직장에서 아이들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아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모의 자녀에 대한 걱정이나 죄책감을 합친 점수와 모의 직업지위, 모의 교육수준, 자녀의 연령, 가족형태, 근무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 $\beta = -.39, p < .001$ ) 핵가족형태보다는 확대가족 형태에서 ( $\beta = -.116, p < .05$ ) 모의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낮다. 모

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의 성역할 태도는 근대적이므로 자녀에 대한 죄책감이 낮은 것으로 추론되고,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는 맞벌이가족에게 더욱 기능적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7) 모가 지각한 모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모가 지각하는 모 취업의 긍정적인 영향은 자녀가 독립심이 커질 수 있고(83.9%), 여성의 역할에 대한 진취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한다(77.0%)는 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정서적 불안이 54.0%, 나쁜 친구를 사귀기 쉬운 점 40.6%, 숙제의 감독이나 학교성적 하락 37.5%을 들고 있다. 즉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자녀감독의 소홀가능성이다.

#### 8) 모가 지각한 자녀생활에 대한 감독실태

앞에서 자녀에 대한 감독의 소홀을 모취업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들고 있으나, 실제로 70%이상이 자녀의 하는일, 가는 곳을 파악하고 숙제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용돈관리는 57.9%만이 감독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경제관리의 태도 형성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모의 교육, 자녀의 성별과 연령, 가족형태, 근무시간, 모의 직업지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모의 자녀감독은 모의 직업지위와( $\beta = -.17, p < .05$ ) 자녀의 연령( $\beta = .14, p < .05$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중위직 취업모가 하위직 취업모보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모의 자녀생활 감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중의 하나는 다음의 발견이다. 모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자녀생활의 감독 소홀이 제기되었는데, 그러나 이제까지의 분석결과를 볼 때 조사대상의 30%정도만이 모가 걱정하듯이 모 부재시 불안을 느끼고 부모로부터 감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한 부모-자녀간의 친밀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녀에 대한 불안이나 죄책감에 빠져 있는 모는 전체의 65%이다. 취업모는 지나치게 자신의 모역할수행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를 밝히기 위하여 모의 교육과 가족형태 그리고 자녀만족도와 자녀감독의 정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교육수준과( $\beta = -.44, p < .001$ ) 가족형태( $\beta = .13, p < .05$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 두 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되는 변량은 22.86%이다. 조부모나 친척과 동거하는 가족형태에서는 자녀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모의 자녀에 대한 불안 및 죄책감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모의 자녀에 대한 불안 및 죄책감이 실제의 자녀만족도나 자녀생활의 감독 정도와는 관계없다는 결과는 취업모가 자신의 직장생활때문에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는 우려를 지나치게 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3. 노모-성인자녀 관계

#### 1) 노모와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특성

노모와 동거하는 가족(35.7%)보다는 분거하는 가족이(64.3%)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시어머니에 관하여 대답한 사람이(81.2%) 친정어머니에 관하여 대답한 사람보다 많았다(18.8%).

어머니와의 동거이유를 물었을 때 “살림을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이 과반수를 차지하고(46.7%) 그 다음에는 “외로워하시므로”(31%), “장남 혹은 외아들이므로”(16.3%), “경제적 이유”(10.9%), “주택문제”(5.4%), “건강상의 문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족의 독특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선행연구(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조병은, 1988)의 경우 경제적 이유, 외로워하시므로, 주택문제 등이 주된 동거 이유로 밝혀진 것에 비하여 맞벌이 가족에서는 노모가 자녀세대의 살림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양상이 크게 두드러졌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의 노모와 성인 딸/며느리 관계는 전업주부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노모 관계와는 다른 속성을 보인다. 이것은 현재의 노인 세대 대부분이 경제력이 없거나 주택문제로 인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경제적 이유로 인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노부모가 부양의 수혜자로서만 인지되는 것과는 달리 맞벌이가족에서는 성인 자녀의 요구에 의하여 노모와 동거하게 되며 따라서

노모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성인 딸/며느리-노모의 상호의존성이 전업주부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노모와의 관계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분거 이유로는 “다른 형제가 모시고 살므로”(41.9%), “독립생활을 원하시므로”(31.3%) 등이 크게 두드러지는 이유였으며, 그 다음에는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시므로”(13.8%), “모시고 살기가 힘들므로”(7.5%)의 순서였다.

노모와 분거하는 경우 노모와 만나는 횟수는 한달에 한두번이 과반수 정도(43.3%) 되었고, 다음이 일년에 서너번(38.2%)이며 약 1/10 정도가 일주일에 한번(10.2%) 혹은 일년에 한두번(8.3%) 노모를 방문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자녀와 분거하는 노인들을 조사한 연구들에 나타난 자녀와의 접촉 빈도보다는 높다(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90; 한국인구보건원, 1989).

바람직한 어머니상에 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던 문항은 “며느리나 딸의 입장을 이해한다.”(69.7%), “젊은이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44.8%), “성격이 온화, 인자하시다.”(45.3%),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43.1%)이었다. “경제적 독립이나 자식들의 일을 잘 돌보아 주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아 현재의 중년층은 노모가 자신들의 생활을 이해해 주시기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노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내용을 묻는 총 13개의 가사항목 중 노모로부터 평균 4가지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집보기, 장담그기, 손자녀 돌보기, 집안대소사에 조언받기는 거의 2/5 이상의 응답자가 도움을 받는다고 대답했다. 시장보기, 아플 때 도와주기, 빨래 개키기, 청소, 설거지, 식사준비 등을 1/5 이상의 응답자가 도움을 받는다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신가를 묻는 질문에 어머니의 수입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2/3 정도(68%)이고, 며느리나 딸이 전혀 모르는 경우도 1/10(11%) 정도나 되었다. 나머지 1/5(21%)은 노모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 때의 평균수입은 463천원이었다.

약 과반수의 응답자가(45.7%) 매월 노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 혹은 용돈을 드리고 있으며 평균

액수는 월 109천원이었다. 비슷한 수의 응답자가(43.9%)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경우에 돈을 드린다고 대답했고 평균 액수는 87천원이었다. 따라서 노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경우 자녀의 평균 월가계 소득의 5~6%를 노모에게 생활비나 용돈 혹은 특별한 경우에 드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노모가 자녀로부터의 수입이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것은 현재의 노인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노모-성인자녀 관계에서 권력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극히 제한됨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약 과반수의 성인 딸/며느리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거나 특별한 경우 돈을 드린다고 대답한 것은 현재의 노모세대가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노모의 이러한 경제적 의존도는 사회전반의 노인공경 규범의 약화와 함께 자녀에 대한 노인세대의 영향력이 약화됨을 나타내고 있다. 본연구의 대상자인 노모는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자녀에게 집보기, 손자녀 돌보기와 같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건강이 현재보다도 나빠지는 상태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모와 분거하는 경우 분거자녀와 노모의 제한된 접촉은 맞벌이 가족의 독특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노모에게 용돈 및 생활비를 드리는 액수 및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돈의 액수도 동거 여부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는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문제는 동거하는 자녀에게 과중하게 일임되어지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분거자녀의 경우 노모와 일년에 한 두번 혹은 서너번 만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며 이는 노모의 신체적 질환이나 일상시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동거자녀가 전담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동거자녀는 분거자녀와 거의 유사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동거자녀가 부모부양의 책임을 과도하게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양은 자녀간의 분담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서적 혹은 일상시의 도구적, 신체적 지원은 동거자녀가 전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의 해석

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의 노부모 부양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 도구적 지원에 있어서도 여러 자녀들의 공동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성인 딸/며느리의 직업 지위에 따른 노모와의 관계

성인 딸/며느리가 중위직의 직업을 가진 경우(44.3%), 하위직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21.6%) 비해 노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chi^2=13.44, P<.001$ ), 분거하는 이유도 직업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chi^2=9.76, P<.05$ ). 중위직의 경우 부모님이 독립된 생활을 원하시기 때문에 분거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40.9%) 다른 형제가 모시고 살므로(36.4%)가 그 다음 이유이었다. 반면에 하위직의 경우 다른 형제가 모시고 살기때문에 분거하는 경우가 절반정도의(48.6%) 응답율을 보였으며, 1/5(19.4%) 정도가 독립된 생활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거이유에 있어서는 성인 딸/며느리의 직업 지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양 집단 모두 노모가 살림을 도와 주셔야 하기 때문에 동거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로 지적되었다.

또한 노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도 성인 딸/며느리의 직업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t=4.17, p<.001$ ). 중위직 주부의 경우 하위직보다 노모로부터 평균 2가지 정도의 도움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관계로부터 느끼는 비용은 보편적으로 낮았으며 성인 딸/며느리의 직업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보상은 성인 딸/며느리의 직업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중위직이 하위직보다 높은 보상을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F=3.08, p<.08$ ). Archbold (198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밝혀졌는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딸들이 노동계층의 딸들보다 어머니와의 관계로부터 더 큰 보상을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모와 동거하는 비율과 노모로부터 받는 도움의 양이 성인 딸/며느리의 직업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노모와 분거하는 이유도 다르게 나타난 결과

는 성인 딸/며느리가 중위직의 직업 지위를 가진 경우가 하위직 직업을 가진 성인 딸/며느리보다 노모와의 상호교류가 많은 것을 나타낸다. 하위직의 성인 딸/며느리의 경우,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노모와의 교류가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비슷한 결과가 저소득층 가족의 친족 관계 연구에서도 밝혀졌다(김주희, 1990; 김태현, 1990; 변화순, 1990). 이들 연구에 의하면 도시저소득층 가족은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친족간의 교류범위가 넓지 않을뿐만 아니라 교류빈도도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류 가족에 비해 저소득층 가족이 노부모와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받는 것으로 밝혀진 외국의 연구와는(Brubaker, 1983; Cicirelli, 1983; Treas & Bengtson, 1987) 대조적인 현상이다. 미국 저소득층의 경우 제한된 경제적 자원과 지역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성인자녀-노부모 관계는 상호간에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받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면 중류계층에 있어서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친밀감을 유지(intimacy at a distance)” 하려는 규범이 저소득층에 비해 훨씬 강하여 성인자녀-노부모 관계는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소득층에 비하여 중류계층이 제반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부모 부양의식도 강하여(옥선화, 1990) 노부모와의 상호교류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3) 노모와의 동거/분거 및 시가/친가에 따른 노모와의 관계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이유는 남편의 출생순위와 관련이 있어 4/5 정도(76.8%)가 장남 혹은 외아들이었으며 분거하는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64.5%) 차남 이하였다. 그러나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남편 및 부인의 출생순위와 관련이 없었다.

노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분거하는 경우보다 노모로부터 도움을 훨씬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70.6, p<.001$ ).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동거/분거, 시가/친가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장선주(1989)의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져

딸과 동거하는 노인이 아들과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자녀의 가사, 기타 서비스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었다.

노모와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을 느끼는 정도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보다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F=5.52, p<.01$ ).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의 질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보다 더 높고( $F=34.96, p<.001$ ), 분거하는 경우 보다 동거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 $F=6.61, p<.05$ ).

노모와 동거하는 가족만을 분석했을 때도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가 시어머니와 동거할 때보다 성인 딸이 지각한 관계의 질이 며느리가 지각하는 관계의 질보다 훨씬 높았다( $t=5.81, p<.001$ ). 분거하는 경우에도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질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t=2.56, p<.01$ ).

비용에 관한 지각도 분거보다는 동거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친정어머니에 비하여 시어머니에 대해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비용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각 집단 크기의 차이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노모와 만나는 빈도와 관계의 질은 관련이 있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나는 집단과 일년에 한두번 만나는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38, p<.07$ ). 즉 일주일에 한번 정도 노모와 만나는 집단이 일년에 한두번 노모와 만나는 집단보다 노모와의 관계를 좋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번, 혹은 한달에 한두번, 일년에 서너번 만나는 그룹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가 적어도 일년에 서너번 이상은 만나야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 딸/며느리-노모의 관계조차도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관계의 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호 접촉과 그에 부수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

노모와 동거하는 경우 분거시보다 비용 뿐만 아니라 보상도 높게 지각하였으며 관계의 질도 높았다. 따라서 맞벌이가족에서는 노모와의 동거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수반하나 동거에 따른 보상도 증가되어

성인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의 질도 높아짐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맞벌이가족에서는 노모와의 동거가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보상이 가장 높고, 비용이 가장 낮았으며, 관계의 질도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맞벌이가족의 주부의 입장에서는 친정어머니와의 동거가 가장 바람직한 가족형태일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 4. 맞벌이가족을 위한 정책

##### 1) 맞벌이가족을 위한 정책요구 분석

맞벌이가족이 현재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주부의 취업으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취업주부의 69.8%가 자녀양육 및 교육, 그 다음의 18%가 가사노동을 대답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가족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50.6%가 자녀교육, 그리고 23.4%가 주택마련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취업주부들은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을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으며 주택마련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맞벌이가족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맞벌이가족을 위한 정책요구는 5점 리커트 척도의 10개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점수가 많을수록 요구도가 높은 것이다. 그 중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현 세대의 개선( $M=4.23$ )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남편과 부인의 의료보험 카드의 단일화( $M=4.18$ ), 육아 등으로 일시 퇴직한 여성의 재취업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M=4.18$ ), 아픈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유급휴가( $M=4.17$ ), 탁아프로그램의 지역 및 직업에 따른 다양화( $M=4.10$ ), 육아휴직제( $M=4.11$ ), 기혼여성의 고용차별 금지법 제정( $M=4.09$ ), 직장 탁아소의 의무적 설치( $M=3.94$ )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았다. 육아휴직과 탁아시설을 남성에게도 제공할 것( $M=3.41$ ), 자녀를 타인에게 맡기는데 드는 비용보조( $M=3.36$ )에 대한 요구는 다른 요구에 비하여는 낮았으나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았다.

아픈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유급휴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현실적으로 자녀가 아파서 부모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부모가 곁에서 충분히 돌보아 줄 수 없다는 데 대한 죄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실제로 본 공동연구의 부모자녀관계에서도 모의 부재시 자녀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사회적 지지망을 필요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위의 연구결과는 자녀가 아프다는 가장 긴박한 상황만을 고려했을 때라도, 아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유급휴가와 같은 정책이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정책에 대한 요구는 사회경제적 지표로 간주되는 학력, 직업, 소득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의 요구수준이 높은 것은 정책자체에 대한 이해와 현실개선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국의 가족복지에 대한 연구(김성천, 198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빈곤이나 의료, 교육, 무주택의 책임을 개인책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고, 학력이 높고 소득이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개인과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본 연구의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이 요구수준이 낮다고 해서 이것이 그들의 현실만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다.

## 2) 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분석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성인자녀-노부모 관계에 관한 9문항으로 알아 보았다. 이 중에서 가장 요구 수준이 높은 것은 학교급식의 실시(M=4.33)이고 가장 요구가 낮은 것은 탁노소 설치(M=3.25)이었다. 자녀의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M=3.85), 방과후 학교에서 학습지도 프로그램(M=3.77), 공공단체에서의 아동을 위한 단체생활 및 각종 취미활동 프로그램(M=4.03)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았다. 직업문제에 대한 생활법률상담(M=3.68),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활상담전화(M=3.63), 부부를 위한 리크리에이션과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M=3.48), 관공서 및 은행등의 야간 창구개설(M=3.84)에 대한 요구가 높다. 탁아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부인의 직업종류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부인의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학교급식을 실시한다면 바람직한 부담형태는 정부와 급식자 반반씩 부담(55.1%), 급식자의 전적부담(35.8%), 무상급식(7.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식실시시 가장 요망하는 내용은 풍부한 영양(44.2%), 위해시설(27.2%), 다양한 메뉴(19.6%), 저렴한 가격(4.5%)의 순으로 나타나 영양문제를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보인다.

한편 탁노소의 이용은 여러 프로그램 형태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탁노소의 이용 희망정도를 알아본 결과 이용하지 않겠다고 31.3%, 가끔 이용하겠다고 40.8%, 자주 이용하겠다고 17.7%, 항상 이용하겠다고 4.9%로 응답자의 2/3정도가 이용에 어느정도 찬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때 맞벌이 가족은 부부관계나 성인자녀-노모와의 관계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요구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요구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맞벌이가족에서 남편들의 가사참여나 역할보충은 매우 적으며, 부인들의 의식구조 변화에 비해 남편들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취업주부들이 남편들보다 이중역할수행에 따른 역할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일하는 시간에 대해 더 불공평하게 느꼈다. 또한 취업주부들이 남편들보다 부인의 취업에 따른 보상과 자원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대화부족과 공동의 여가생활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부인들이 남편에 비해 역할의 공유와 평등한 동반적인 부부관계를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이 지각한 불공평의 정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두 변인은 역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외에 남편과의 동반적인 관계(예로 대화, 여가)와 직업만족도가 부인의 결혼만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남편들의 경우에는 성생활요인이 결혼만족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었고 부인취업에 따른 역할갈등이 낮을수록, 남편자신의 가사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결혼만족도의 공통요인으로 나타났것은 부인 취업에 따른 자원인지와 성생활만족 요인이었다. 하위직 취업주부의 부부관계는 중위직 취업주부보다 남편의 지지도가 낮고 부인의 취업에 따른 자원인지도가 낮으며, 여가의 부족, 성생활문제 및 낮은 결혼만족도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족의 자녀는 직업을 가진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경제적 여유 및 스스로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모취업의 장점으로 여긴다. 그러나 모부재 기간동안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자녀가 상당한 비율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모의 직장생활에 관하여 모와 의사소통하고 있고 부모와 높은 친밀도를 유지하나 대상의 30%정도는 부모와의 유대가 낮다. 모의 60%는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여 자녀에 대한 불안 및 죄책감을 보고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모의 70%이상인 자녀를 잘 관리,감독하고 있고 자녀의 성격이 원만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모의 불안 및 죄책감은 모의 실제 역할수행 정도와 무관하게 하나의 편견으로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가족의 성인딸/며느리 노모 관계는 노모가 살림을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직의 직업을 가진 성인 딸/며느리가 하위직의 직업을 가진 성인 딸/며느리보다 노모와 동거하는 비율도 높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으며 노모와의 관계에 대한 보상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노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보상이 크고 비용이 낮고 관계의 질도 높아 주부의 입장에서는 친정 어머니와 동거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일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맞벌이가족을 위한 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정책적 제언은 가족체계안에서 맞벌이가족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내용과 사회,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야 할 내용으로 분류한다.

## 1. 가족체계 차원

### 1) 부부관계

맞벌이가족의 부부는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과 부인의 불공평 인지도를 줄이고, 남편의 가사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남편들의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와 권위의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부인의 취업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부인들도 근대적 성역할 태도와 강한 직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슈퍼-우먼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된다.

### 2) 부모-자녀 관계

취업모의 경우 불필요한 죄책감으로 부터 벗어나야 하며 모의 취업에 대한 자녀의 이해를 얻기위하여 모의 직업생활에 관하여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독립적인 자기관리에 대한 훈련은 자녀의 자율성 및 책임감,협동에 대한 교육을 증진시키므로 자녀의 가사 참여 권장이 요구된다. 학교 공부만을 최고의 목표로 여기는 현재의 분위기는 이기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을 만드는 결과만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 3) 노모-성인자녀 관계

맞벌이가족의 특성상 노모와의 동거 특히 친정어머니와의 동거가 취업주부의 입장에서 가장 기능적일 수 있다. 따라서 딸과의 동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노부모 세대와 자녀세대에게 고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확대가족 형태는 손자녀세대에게도 기능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 2. 사회정부 차원

1) 아픈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유급휴가의 실시, 남편과 부인의 의료보험카드의 단일화,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현세대의 개선과 관공서 및 은행의

야간창구 개설 등이 요구된다.

2) 맞벌이가족 자녀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자녀를 위한 방과후 생활과 학과공부 및 예체능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탐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취업모들은 자녀의 도시락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자녀의 균형된 식생활을 위한다는 견지에서 학교급식 실시는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3)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와 가족상담이 요구된다.

평등하고 동반자적인 부부관계를 지향하도록, 특히 남편들의 전근대적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부부간의 역할분담, 대화기법, 성격적응을 포함시키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맞벌이 주부의 자녀에 대한 죄책감은 실제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의 편견이므로 이들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주부가 직업을 가짐으로써 가족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교육은 미혼 남녀를 위한 결혼준비 교육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족문제 해결을 돕는 가족상담기관의 설치도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4) 이상에서 언급한 맞벌이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하위직 취업모의 가족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강성희(1989). 취업주부의 직무만족도와 역할갈등도 연구 - 사무직 여성과 전문직 여성의 비교 -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강수경(1985). 취업주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강영자(1984). 어머니의 직업이 자녀의 창의성 및 성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 4) 고선주(1990).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정 모친과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구혜령(1990).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권영자(1986). 한국가정과 여성복지. 여성연구 12, 한국여성개발원. 가을.
- 7) 김경숙(1987).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김동윤(1985). 한국가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9) 김상균(1984).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여성연구 제2권 4호.
- 10) 김성천(1985). 한국가족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연구 제6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11) 김송애(1990).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기혼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김영모(1980). 복지국가와 여성복지에 관한 열고. 아여연 창립20주년기념 심포지움. 아세아여성연구소.
- 13) 김영종(1990). 한국사회의 여성문제와 사회복지. 여성문제연구 18.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소.
- 14) 김재근(1985). 맞벌이가정 아동과 홀벌이가정 아동의 제심리적 변인에 관한 비교연구; 맞벌이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15) 김종숙(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1985). 한국가족복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17) 김주희(1990). 저소득층의 친족문제. 가정복지 세미나. 한국가족학연구회.
- 18) 김태현(1990). 저소득층의 노인문제. 가정복지 세미나. 한국가족학연구회.
- 19) 도미향, 최외선(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의사소통 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8권 2호.

- 20) 박경란(1988).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1) 박미령(1987). 한국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2) 박세일(1987).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대사회와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23) 변화순(1989). 한국가족 정책에 관한 종합적 연구. 여성연구 제7권 1호. 한국여성개발원.
- 24) 서동인(1985).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서병숙(1986).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6.
- 26) ———(1989).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2호.
- 27) 송현애, 김순옥(1988).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6권 2호
- 28) 신성자(1981). 기혼 직업여성의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9) 안선영(1988).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갈등과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옥선화(1990).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1) 유영주(1977).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수행상의 문제. 서울대학교 가정대학논문집 제2집.
- 32) 이가옥외 5인(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
- 33) 이동원(1976).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27집.
- 34) 이명홍(1983).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문제와 대책. 제2회 전국사회복지대회 -선진조국과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35) 이명희(1985). 여성과 노동. 동녘
- 36)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1992). 기혼 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생활 갈등 및 부 적응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2호.
- 37) 이연주(1984).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4호.
- 38) 이용숙, 김영화, 최상근(1988). 어머니의 취업과 학교교육 및 자녀의 성취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39) 이영, 문수재, 지혜련(1986). 한국취업모의 자녀양육 현황과 문제점. 연세대 아동학교. 아산재단 연구비지원.
- 40) 이원표(1983). 기혼여교사의 이중역할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1) 이정숙(1982).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변천과 가족복지의 정책적 고찰. 사회복지 연구 72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42) 이정우, 김규원(1986). 저소득층 취업주부가정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성남시 취업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4호.
- 43) 임정빈, 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4권 1호.
- 44) 장선주(1989).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생활감정 및 교류-이들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의 비교-.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5) 장인협(1985). 가족복지의 과제와 전망. 제3회 전국사회복지대회 -2000년대를 향한 사회복지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46) 정해은, 서병숙(1983). 여성전문직 종사자의 가정내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권 1호.
- 47) 조병은(1988). Intergenerational family solidar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aged parents, University of Delaware 박사학위논문.
- 48)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 한국노인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갤럽 연구소.
- 49) 한국여성개발원(1987). 세계각국의 모성보호 규정. 여성연구 2.
- 50) 허훈(1988). 한국대학생들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노년학, 8.
- 51) 홍두승(1983). 한국사회 계층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 52) 황숙연(1987). 한국의 가족정체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53) Archbold, P.(1983). Impact of parent caring on women, *Family Relations*, 32.
- 54) Brubaker, T.B.(1983).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55) Cicirelli, V.(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56) Hoffman, L.(1955). The effects on children of maternal and paternal employment. In N.Gersten and H.E. Gross(Ed.) *Families and Work*,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57) Keith, J.G., Nelson, C.S., Schlabach, J.S. & Thompson C.J.(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mployment and three measure of early adolescent responsibility: family- related, personal, and socia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
- 58) Paulson, S.E.Koman III J.J & H,(1990). Maternal employ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 in families of seventh grader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0 (3).
- 59) Pleck, J.H.(1985). *Working Wives / Working Husband*.Sage Publications.
- 60) Seccombe, K.(1986). The effects of occupational conditions upo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 application of Kohn'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Nov).
- 61) Sexton, C.S & Perlman, D.S.(1989). Couples' career orientation, gender role orientation and perceived equity as determinants of marital pow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Nov).
- 62) Spitze(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Aug).
- 63) Thompson,L & Walker, A.J.(1991).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A.Booth(ed.).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N.C.F.R.
- 64) Tiedje, L.B., Wortman, C.B., Downey,g., Emmons, C., Biernat, M & Lang, E.(1990). Women with multiple roles: Role-compatibility perceptions,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Feb).
- 65) Treas, J. & Bengtson, V.(1987), The family in later years, In Sussman, M.B. & Steinmety, S.K.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Press.